광주·전남 상장사 '장사 잘했다'

상반기 수출 호조…매출·영업이익 급증

금호산업·대유에이텍 등은 흑자전환도

자동차와 가전의 수출 호조와 내수 경기 활성화로 기아자동차와 금호산업, 금호타이어, 광주신세계 등 광주·전남지역 유가증권 상장사와 지역에 생산거점을 둔 주요 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코스닥 업체들은 지난해보다 영업실적이 더욱 나빠진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광주·전남지역 12월 결산법인 14개사 중 반기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셀런을 제외한 13개사의 올해 상반기 실적을 집계한 결과, 매출액 3조3487억원, 영업이익 246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1.06%, 452.34% 증가했다. 실적 개선으로 순이익은 적자(-2247억원)에서 올해 흑자(9505억원)로 돌아섰다.

특히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금호타이어와 금호산업을 비롯해 기아차 협력업체인 대유에이텍은 흑자 전환했다. 반면 동아에스텍은 지역 유가증권 상장사 중 유일하게 적자를 기록했다.

코스닥시장 광주·전남지역 8개사는 올 상반기 매출액이 158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7%(132억원) 감소했다. 이에 따라 영업이익은 지난해 상반기 77억원에서 81억원이 줄어들어 적자(-4억원)로 돌아섰고, 순이익도 지난해 -68억원에서 올해 -139억원으로 적자 폭을 키웠다.

지역 코스닥기업 중 와이엔텍은 순이익 1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76.43% 성장했고, 성원파이프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다. 반면 셀런에스엔, 서산, 행남자기, 지앤알 등 4개사는 적자로 돌아섰고, 파루와 폴리플러스도 적자를 면치 못했다. 광양제철소가 소속된 포스코는 상반기 가동률이 100%를 넘어서는 등 매출 호조로 국내 기업 중 가장 많은 이익을 남겼다. 포스코는 영업이익 3조2830억원, 순이익 2조633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504.10%, 248.78% 증가했다.

광주에 생산거점을 둔 기아자동차는 스포티지R과 K5, K7 등 신차 효과로 매출액(10조6285억원)이 급증, 지난해보다 순이익이 115.16%(9563억원) 늘어 이 부문 6위에 올랐다.

지난해 상반기 -643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던 금호산업은 순이익이 8512억원 증가해 흑자(7869억원, 7위)로 전환했다. 호남석유화학은 순이익이 전년도보다 3.86% 감소했지만 4305억원을 달성해 18위에 랭크됐다.

지역 상장사 중 상반기 순이익이 크게 증가한 곳은 KPX화인케미칼(199억원, 358.65%)과 부국철강(85억원, 253.51%), 화천기공 (56억원, 137.44%), 로케트전기 (19억원, 131.32%) 등으로 2배이상 신장됐다.

올 상반기 254억원의 영업이익을 낸 광주신세계는 매출액 영업이익률 24.48%를 기록, 이 부문 국내 상위 20개사 가운데 14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는 1000원어치 상품을 팔아 245원을 남겼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삼성광주전자는 올 상반기 사상 최대 매출실적(1조9324억원)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 하락과 원자재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영업이익(-24억원), 당기순이익(-11억원)이 적자를 보였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올 상반기 광주·전남 상장사 영업실적

〈유가증권시장〉

종목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증감율)
광주신세계	103,982	25,453	21,629 (23.04)
금호산업	1,067,737	70,665	786,995 (흑자전환)
금호타이어	1,214,527	88,251	74,585 (흑자전환)
대유신소재	90,707	1,832	4,771 (87.90)
대유에이텍	96,734	4,779	4,031 (흑자전환)
동아에스텍	24,493	228	-432 (적자전환)
디에스알제강	71,030	5,121	5,058 (-58.74)
로케트전기	34,580	1,978	1,980 (131.32)
보해양조	64,248	3,188	2,514 (-42.18)
부국철강	142,236	8,578	8,575 (253.51)
조선내화	203,029	10,810	15,198 (16.21)
화천기공	68,561	2,448	5,627 (137.44)
KPX화인케미칼	166,836	22,678	19,929 (358.65)

〈코스닥증권시장〉

종목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증감율)
서산	13,277	-528	-143 (적자전환)
성원파이프	63,737	2,197	2,963 (흑자전환)
셀런에스엔	10,320	597	-6,404 (적자전환)
와이엔텍	16,750	2,565	1,848 (76.43)
지앤알	6,377	-2,452	-6,192 (적자전환)
파루	12,874	-2,135	-2,925 (적자지속)
폴리플러스	12,686	-1,153	-3,041 (적자지속)
행남자기	22,814	521	-43 (적자전환)

〈단위:백만원·%〉

파리 초대형 쇼핑몰 인수 국민연금이 18일 매입계약을 체결할 예정인 파리 근교의 초대형 쇼핑몰 오 파리노(O' PARINOR)의 내부 전경. 국민연금은 이 쇼핑몰의 지분 51%를 3500억원(약 2억3000만유로)에 기존 최대주주였던 해머슨(Hammerson)으로부터 매입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가계·기업 대출금 1400조 넘었다

전달보다 3.9% 늘어 … 지자체 대출금도 2조 돌파

가계와 기업이 예금취급기관에서 빌린 돈이 1400조원을 넘어섰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대출금은 올해 들어 2조원을 돌파했다.

17일 한국은행이 집계한 예금취급기관 개관표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가계대출(민간 비영리단체 포함) 잔액은 652조45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은행권이 446조6천700억원으로 68.5%를 차지했고 비은행권은 205조7800억원이었다.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은행권을 앞질렀다.

올해들어 은행권의 월별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은 작년 동월 대비 3.8~4.8%였지만 비은행권의 증가율은 5.6~6.5%를 기록했다.

기업대출 잔액은 756조67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은행권이 634조2700억원으로 83.8%였고 나머지 122조4000억원은 비은행권 대출금이었다. 이에 따라 가계와 기업이 갚아야 할 돈은 모두 1409조1200억원으로 불어났다.

최근 재정 문제가 불거진 지자체의 대출금은 6월말 현재 2조4900억원이었다.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선 지자체 대출금은 작년 동월 대비 증가율이 지난해 4월 플러스로 돌아섰다. 올해들어 월별 증가율은 최고 192.9%(3월)에 달해 가계나 기업의 대출 증가율보다 훨씬 높았다.

금융연구원 장민 국제·거시금융연구실장은 "지나친 가계부채 규모가 앞으로 소비심리를 위축시키는 등 성장의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소득은 늘되 부채는 더 늘리지 않는 디레버리징(차입 축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소기업·소상공인도 컨소시엄 구성

조달 사업 경쟁입찰 참여할 수 있다

정부 조달사업을 단독으로 수주하기 어려운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17일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조달청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가운데 석재, PVC관 등 20개 표준 품목에서 최소 20억원어치 이상을 구매할 경우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컨소시엄'간 경쟁입찰이 실시된다.

레미콘, 아스콘은 50억원 어치 이상을 정부가 구매할 경우에 중소기업 컨소시엄간 경쟁입찰이 허용된다.

중소기업만이 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은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 정부가 따로 구매하는 제품으로 현재 196개 품목이 지정돼 있다.

정부는 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컨소시엄에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1인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포함된 소기업·소상공인의 지분율을 20% 이상이 되도록 해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입찰참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조달청은 내달 1일부터 공공물품 구매를 위한 적격심사 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우수기업'에 0.5점의 가점을 부여하는 '정부구매 인센티브제'를 시행하하는 등 대-중소기업 상생방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기아차 노사 '광주교섭' 탐색전

양측 협상 적극적 … 추석전 조기타결 기대

기아자동차 노사가 17일 광주공장에서 올해 임단협 2차 본교섭을 열고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다.

노사는 18~19일 이틀동안 광주공장에서 실무교섭을 계속한 뒤 오는 20일 경기 화성공장에서 3차 교섭을 벌인다.

특히 노사 모두 집중 교섭을 통한 조기 타결을 원하고 있어 '광주 교섭'에서 어느 정도의 의견 접근을 이룰지 주목된다.

17일 기아차 노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광주2공장 연수원에서 서영종 사장과 김성락 노조 지부장 등 노사 교섭위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단협 2차 본교섭을 열어 실무협상에서 합의된 내용을 승인했다.

이날 협상에서 노사는 단체협약 31조까지 상호 의견을 교환한 뒤 상당 부분 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임금 인상안과 주간 연속 2교대,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한도)제 시행 등 올해 임단협 쟁점에 대해 노사 모두 아직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아 탐색전에 그치고 있다.

노조는 오는 20일께 사측에 일괄 제시안을 요구하고, 27일 또는 30일 제4차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앞으로의 투쟁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중기청, 창업 준비 장애인 경영컨설팅

중소기업청이 우수한 아이디어로 창업을 준비하고 장애인들의 경영 컨설팅을 돕기로 했다.

컨설팅 프로그램은 창업심화 전문교육, 그룹 컨설팅, 창업 전 사업화 및 창업 후 사후관리 등 총 3단계로 구성된다. 광주·전남을 비롯해 3개 권역에서 다음달부터 진행된다.

참가 희망자는 신청서와 창업 기초조사서, 복지카드 사본을 이메일(lhj@debc.or.kr) 또는 팩스(02-326-0640)로 송부해 신청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326-1339)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www.debc.or.kr)를 참조하면 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코스피지수	1,755.03 (+11.72)
▲ 코스닥지수	477.65 (+1.57)
▲ 금리 (국고채 3년)	3.76% (+0.02)
▼ 원·달러 환율	1,176.20원 (-11.00)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

한국경총회장 이희범씨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7일 차기 회장에 이희범(61) STX에너지·중공업 총괄 회장이 취임한다고 밝혔다.

이 신임 회장은 경북 안동 출신으로 서울대 공대 전자공학과와 미국 조지워싱턴대 대학원 경영학과를 나왔다. 1972년 행시 12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산업자원부 차관과 장관,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한국무역협회장 등을 지냈다. /연합뉴스